

# 2

##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 지계관(地界觀)의 자생적 근대성

---

Autogenous Modernity of the Cheonji-Seonggyeongsin View of Earthly Realm

# 서론: 연구 배경과 문제의식

- 동학사상 및 한국 종교철학의 지관(地觀)  
전통적인 천지인(天地人) 삼재사상과 동학의 지관 개념의 발전
- 대순사상이 제기한 자생적 근대성 문제의식  
서구 중심의 근대성을 넘어선 동양적 근대성의 가능성 모색
- 지계관의 의미와 연구 필요성  
천지신명(天地神明)의 삼계 시스템에서 지계가 가지는 특별한 위상과 해원(解冤)의 장으로서의 역할
- 연구방법 및 접근방식  
『전경』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와 천지성경신 개념의 현대적 해석

# 지관(地觀)과 인신강세

- 인신강세(人身降世)의 개념과 의미

구천상제가 인간 모습으로 강세함으로써 속성과 실체의 두 성격을 동시에 지니게 됨. 다중적 지관(地觀)의 성립 배경이 됨.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시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희 동방에 순화하던 중이 땅에 머문 것은...”

- 조선에서의 인신강세 이유

무명의 악소 민족을 돕고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기 위함. 특히 조선이 신명을 가장 잘 대접하는 나라였기에 선택됨.

- 삼신산과 땅의 성격

정읍의 삼신산(봉래산, 영주산, 방장산)은 땅의 중심으로서 인신강세의 지리적 배경. 천지의 음양합덕 관점에서 땅의 중심 역할.

- 해원과 땅의 관계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 땅의 해원은 천지공사의 핵심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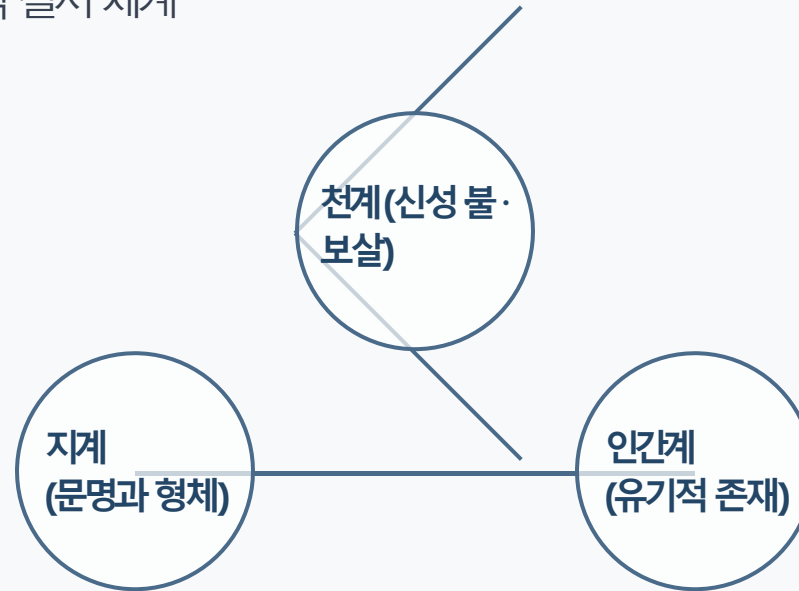
# 지계관의 근대성: 해원과 원시반본

|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

- 원시반본(原始返本)의 원리  
강(姜)성의 재출현과 같이 원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천지공사의 핵심 원리
- 해원(解冤)의 지계적 의미  
무명의 악소민족과 삼신산 같은 지리적 성지(聖地)를 통한 해원공사의 실현
- 리미널리티(liminality)와 해원의 방법론  
일본해원과 조선보은의 역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극에서 상생으로의 전환
- 자생적 근대성의 전개  
물질에 치우치지 않은 대안적 근대성의 발전과 한국에서 나타난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산업화, 문화적 선진화

#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과 삼계 시스템

- 천지신명(天地神明) 개념  
천지를 운행하는 신명의 지극한 성경신(誠敬信)에 의해 세계가 운행됨
- 삼계(三界) 시스템 구조  
천계, 지계, 인간계로 이루어진 우주적 질서 체계



"天地誠敬信"

천지의 운행은 천지신명의 지극한 성경신을 통해 이루어짐

# 유불선과 동서양 지관의 재활성화

- 유불선의 지계관 주요 원리
  - 儒 포태(胞胎) - 예(禮)와 질서의 형성 방식 양
  - 佛 생(養生) - 정신적 수행과 심신 정화의 공간
  - 仙 욕대(浴胎) - 자연과의 합일과 신선 사상의 지형적 토대
- 삼신산부모산 등 성지와 명당 개념  
봉래산(蓬萊山)·영주산(瀛洲山)·방장산(方丈山)의 삼신산과 지기(地氣) 통일, 지맥(地脈)을 통한 에너지의 흐름과 성지의 풍수지리적 특성
- 풍수지리와 전통현대의 융합  
동양의 풍수원리와 서양의 공간지리학 융합, 천지인 삼재의 조화로운 배치를 통한 해원의 공간 창출, 정음정양(正陰正陽)을 통한 지계질서 재편
- 재활성화의 현대적 의미  
지역성과 보편성의 조화,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모델 제시, 인간과 신명이 조화를 이루는 지계관의 새로운 패러다임

## 서양 근대성과의 비교

- 서양 실체론적 지관(地觀)  
물질적, 기계적 관점에서 바라본 땅의 이해 – 서양 지관은 주로 소유와 개발의 대상으로서 땅을 이해

### 서구의 근대성



과거를 폐기하고 미래만 지향 물  
질적 발전과 기계적 효율성 추구  
인간과 자연의 분리, 착취적 관계

### 대순사상의 자생적 근대성



해원(解冤)을 통한 과거와의 화해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운 발전 천지  
인(天地人) 삼재의 상생적 관계

- 서구 근대성에 대한 대순사상의 평가  
"해원 없는 서구의 근대성은 과거의 원을 더 증폭시켜 인류를 돌아오지 못할 진멸지경에 닥치게 하였다"
- 신명(神明)과 기계 문명  
서양의 기계문명은 신명을 박대(薄待)하여 물질적 성취에만 집중했으나, 대순사상은 신명을 우대(優待)하는 조선에서 천지공사가 시작되었다고 인식
- 동서문명의 균형과 통합  
마테오 리치(利瑪竇)로 시작된 동서 문명교류를 천지공사를 통해 재조정하고 새로운 통합적 세계관 제시

# 결론: 동서융합과 지상천국론

대순사상의 지계관은 동서양의 사상을 아우르는 자생적 근대성의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 지상천국(地上天國)의 사상적 의미  
해원과 보은을 통한 상생의 원리, 천지의 원한 해소를 통한 후천 선경의 실현
- 후천 질서와 인간신명의 역할  
천지성경신을 통한 신인의도(神人依導), 신명과 인간의 상호보완적 관계 구축
- 동서양유불선의 통합적 전망  
서양의 실체론과 동양의 기화론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유체계 제시, 물질문명을 넘어선 정신문명 발전 방향 모색

## 향후 연구 방향

대순사상의 지계관을 기반으로 현대사회의 환경공간토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모색

